

MSO (병원경영지원회사)

MSO는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뜻한다. 의료행위와 관계 없는 병원 경영 전반, 구매, 인력 관리, 진료비 청구, 마케팅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고은지 책임연구원 ejko@lgeri.com

의료산업 활성화 수단으로 허용

2006년 12월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서비스 산업 종합 대책은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각종 서비스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 눈에 띄는 부분은 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의 도입 활성화로, 의료자원 공동 이용을 통한 비용 절감 및 규모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은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병상의 공급 과잉에 따른 병원 간 양극화로 중소 병원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에 따른 환자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은 300병상 미만을 보유한 중소 병원이 전체의 83.1%를 차지하고 있으며, 3분의 1 가량인 37.7%는 100병상 규모에 미달하는 영세 병원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영세 의료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과도한 시설 및 장비 보유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MSO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MSO는 구매, 인력 관리, 마케팅 등 병원 경영만 지원하고 의료 행위는 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의 진료와 경영이 분리되어 중소 병원의 경영 개선에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소수 네트워크 병원 중심으로 도입 중

현재 국내에서는 예네트워크(치과), 고운세상네트워크(피부과), 함소아(한의원) 등 소수의 네트워크 병원을 중심으로 초기적인 형태의 MSO가 이미 도입되고 있다. 이들 병원들은 의료기기 등의 공동 구매, 고객 DB·치료 기술 노하우 등의 공유를 통한 프랜차이즈

형태의 네트워크 병원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MSO가 활성화되면 현재의 단순한 네트워크에서 벗어나 병원의 모든 인프라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경영전문 회사가 탄생하게 된다.

특히 영리법인 설립이 불가능한 현 제도 하에서 MSO의 도입은 비 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소유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관련 업체들이 MSO 설립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MSO의 도입으로 사실상 병원 경영에 외부 자본을 끌어들이 수 있는 길이 마련되기 때문에 수익형 병원 사업이 허용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현재의 비영리 법인 병원은 수익을 외부로 유출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MSO 체제 하에서는 그 수익을 투자자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 가능해진다.

향후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된다면 보험료 협상을 위해서 MSO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보험회사는 의료기관에 환자를 의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이 때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와의 관계가 중요해진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료기관들은 MSO의 설립을 통해 보험회사와의 협상을 보다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삼아야

멀지 않아 의료시장 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MSO의 본격 도입은 국내 의료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수익형 의료 사업에 대한 사회적 이해 부족, 의료계 내의 의견 수렴 미흡 등으로 기존 의료기관의 MSO 설립에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내 의료기관들이 현재의 경영난을 개선하고 향후 국내에 진출할 외국 의료기관에 맞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MSO와 같은 선진화된 의료경영시스템의 도입에 차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및 관련 기관은 제도적인 지원을 계속 해 나가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의료계 스스로 서비스 질 제고와 경영 합리화를 위한 노력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www.lgeri.com